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영화 '김종욱 찾기'의 임수정

영화는 연극으로 연극은 영화로

같은 원작 다른 느낌 … 관객은 즐거워

'친정엄마' '그대를 사랑합니다' '애자' 등 잘 만든 작품 하나 … 장르 넘나들며 인기

'영화에서 연극으로, 연극에서 영화로.'

작품성가 흥행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뒀던 '왕의 남자'와 '살인의 추억'은 모두 연극이 원작이다. 이처럼 같은 원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가 문화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최근 단연 눈길을 끄는 '원 소스 멀티 유스' 사례는 '친정엄마'다.

고혜정 작가가 지난 2004년 펴낸 에세이 '친정엄마'는 3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연극,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졌다.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진 연극은 고두심과 강부자가 주연을 맡아 지난해 12만명을 동원하며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오는 22일 개봉하는 '친정엄마'는 연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딸에게 지극정성이었던 엄마와 엄마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딸 지숙의 2박3일 여행을 잔잔하게 그린 영화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출연중인 김해숙과 박진희가 주연을 맡았다.

'친정엄마'는 김수미·선우용녀·오정해가 출연하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공연중이다.

강풀의 만화를 원작인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역시 현재 한창 촬영중이다.

'마파도'의 추창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노년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 이순재·윤소정·김수미·송재호 등 탄탄한 연기력의 중견 배우들이 타이틀롤을 맡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의 전범'으로 꼽히는 '김종욱 찾기' 역시 영화로 만들어진다.

지금도 상연중인 '내 마음의 풍금', '싱글즈' 등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은 많지만 국내 창작 뮤지컬이 영화화되는 건 '김종욱 찾기'가 처음이다.

초연 후 지금까지 25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김종욱 찾기'는 인도 여행에서 처음 만난 첫사랑 김종욱을 잊지 못해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에 의뢰한 여주인공과 이 첫사랑을 찾아주려는 남자 사이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전우치', '장화 홍련'의 임수정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로맨틱 코미디 연기에 도전하며 지난해 군에서 제대한 공유가 남자 주인공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뮤지컬의 대본과 작사, 연출을 맡았던 장유정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감독으로 데뷔한다.

그밖에 '파리의 연인'의 작가 김은숙이 대본을 쓴 '정인'(情人)을 비롯해 '춘천 거기', '남자 충동', '삼류 배우', '마르고 닳도록'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등이 충무로에 판권이 팔렸다.

지난 2009년 개봉해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영화 '애자'는 최근 연극으로 만들어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엄마 열풍'에 동참한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을 원작으로한 영화 '친정엄마'

최근 연극으로 만들어진 영화 '애자'

사고뭉치 딸과 암에 걸린 억척스런 엄마의 사랑과 화해를 가슴 뭉클하게 그린 영화 '애자'에서는 김영애와 최강희가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연극 '애자'에서는 연극 무대에 데뷔하는 소유진과 금보라를 비롯, 연극배우 송지영, 최정연이 더블 캐스팅 됐다.

연극 '애자'는 영화보다 좀 더 친구 같은 모녀 관계를 보여주며,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엄마 영희의 과거 등 일부 장면이 추가된다.

한국영화는 아니지만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레인맨'도 현재 연극으로 만들어져 상연중으로 탤런트 박상원이 주연배우로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베스트셀러

표절 시비에 휘말린 베스트 셀러 작가가 외딴 별장에서 글을 쓰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영화로 원톱 주연을 맡은 엄정화의 활약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20여 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 셀러 작가로 군림해온 백희수는 신작 소설이 자신이 심사를 맡았던 작품을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루 아침에 사회적 명성을 잃고, 결혼생활

표절 시비 휘말린 작가
소설과 외딴 별장 얽힌
미스터리 추적 나서다

마저 갈팡질팡 하던 그녀는 화려한 재기를 꿈꾸며 딸 연희와 함께 시골의 외딴 별장으로 내려간다.

창작에 목말라 있던 희수는 '언니'라고 불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딸 아이의 이야기를 소설로 완성시켜 재기에 성공하지만 그 이야기조차 이미 10년 전 발표된 소설과 똑같은 내용임이 밝혀져 또다시 표절에 휘말린다. 희수는 표절 혐의를 벗기 위해 자신의 소설과 별장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류승룡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신예 이정호 감독의 데뷔작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